

NX: AC Saga

NX Story

부 서 명	NX mobile 기획팀	작 성 자	이희성
최초작성일	2013-06-05	최종수정일	2013-07-01

작성 일자(업데이트 기록)

일시	내용	작성자
2013-06-05	NX-PC 주요 스토리 및 설정 확인.	이희성
2013-06-14	NX mobile에 대한 스토리 세계관 전면 재 수정.	이희성
2013-06-21	New World Order의 세계관 NX(New Extreme generatin)에 투영.	이희성
2013-07-01	1차 탈고.	이희성
2013-07-02	NX-PC 버전의 중요 계승물에 대한 용어의 해석과 정의 붙임.	이희성
2013-07-02	코덱스의 시작으로부터 게임 플레이의 시작이 되도록 스토리 완료.	이희성

NX: AC Saga

목차

작성 일자(업데이트 기록)1

목차2

1. Story3

1.1. 기원에 대한 의문3

1.2. 생물학적 기원과 생존을 위한 투쟁5

1.3. 신 세대의 등장.....7

1.4. 발전과 반목9

1.5. 전쟁의 서막11

1.6. 기술과 무기13

1.7. 생명의 포자.....15

1.8. 축복과 저주17

2. 연대 기록.....19

2.1. 모션 DB의 NX 프로젝트에 대한 지구 정부의 기록19

2.2. 퓨리타니아 정착 정부의 연대 기록21

1. Story

1.1. 기원에 대한 의문

우리들의 과거에 대한 논쟁은 섹터 2020¹에 불시착했던 100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구”.

우리는 지구 라는 별에서 떠나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왜 떠나왔는지는 선조들의 유훈에 따라 가르치지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몇몇 지도자 그룹으로 키워질 아이들은 우리의 기원 이전의 역사를 배운다. 그것은 우리 집단의 리더 그룹이 가져야 할 책임과 상황의 대처를 위한 준비라고 한다.

리더 그룹이 아닌 대부분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존과 전투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 힘든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14 살 전후가 되면 우리 행성의 가혹한 환경²을 체험하고 실감하게 되면서 어른 세대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된다.

¹ 행성 퓨리타니아(PURITANIA)의 정착촌 캠프, 퓨리타니아란 이름은 클론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렀던 이름에서 유래한다. 지구를 떠날 때 오퍼레이터(Drone) 들을 제압한 클론들은 스스로를 퓨리탄(Puritan)으로 불렀으며 모션의 이름도 메이플라워 호로 명명했다. 이후 AC 태양계에 진입하여 제3행성에 불시착 이후 행성의 이름을 퓨리타니아로 부르게 된다.

² 섹터 2020은 거대한 도넛 형태의 함선과 불시착 때 떨어져 나간 모션의 잔해들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약 240km²로 모션의 선수와 선미의 길이는 약 20km에 이른다. 섹터 2020의 주변 지형은 산지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지 아래 평야 지역은 사막 지역이다. 사막 지역의 상당 지역은 소금 사막이며 과거에 상당량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양극에서 발견된 얼음의 양을 봤을 때 어떤 시기에 물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사막의 남쪽 지역은 물의 비등점에 육박하는 기온으로 불시착 초기에는 생존 유지 장치가 내장된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북위 30° 아래 지역은 사실상 생명체가 살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며 적도 아래 남위 30°까지 이런 환경은 이어진다. 섹터 2020의 북쪽은 100km까지는 산지 지형이며 그 위로는 거대한 바위 산 지역이 존재한다. 급속한 침식의 활동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지각의 암반층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은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70도°를 이루고 있으며 위성 궤도에 쏘아 올린 궤도 스캐너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북위 40° 위쪽 지역은 어떤 지형 조건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다. 충분한 물(99.9% 얼음)이 존재하며 대기 층도 안정적인 퓨리타니아가 이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자전 축의 각도와 중력의 세기가 원인이다. 정각에서 1.5° 정도 기울어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자전 축 때문에 중위도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순환 구조의 기후 특색을 보이며 첫 불시착 이후에도 미생물을 제외한 생명체는 이 지역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대기는 86%의 질소, 11%의 산소, 1%의 이산화탄소, 그 외 기체 구성이 1%로 구성되어 있어 호흡을 위한 산소가 부족했다. 또한, 대부분의 물이 북극과 남극의 양극 지각 아래에 얼어있었기 때문에 수증기 상태의 물은 희박했고 구름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유황 가스 구름들인 상태에서 지구의 중력보다 강한 퓨리타니아의 중력은 두꺼운 대기층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기층의 권역은 무려 100km에 달했다. 두꺼운 대기층 덕분에 태양 빛의 산란은 지상에서의 하늘이 녹색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보였다. 적은 산소의 양은 양극의 얼음을 녹이는 프로젝트 - 이 사건으로 퓨리타니아의 지표 고유 생물 종의 90%가 멸종하였다. - 가 진행되면서 해결되었지만 강한 중력은 퓨리타니아의 생물 종들에게 다른 진화의 방향을 강요하였다.

NX: AC Saga

에피소드 1: Story Cut-scene Image 제작을 위한 참고.



왼쪽부터)

퓨리타니아의 기후 대순환: 지표에서 부는 바람은 북반구는 북풍, 남반구는 남풍이다. 양극은 매우 춥고, 적도는 항상 뜨거운 기후 특징.

퓨리타니아 중위도 일반 지형: 척박한 산지와 뿌연 대기가 특징.

퓨리타니아 중위도 저지대 지형: 소금사막으로 연결되는 저지대.



왼쪽부터)

초기 섹터 2020 의 연상모습(참고이미지: 스펙옵스 두바이)

소금사막에서 채취한 소금을 쌓아놓은 형태

1.2. 생물학적 기원과 생존을 위한 투쟁

우리의 과거 생존 투쟁은 치열했다. 행성 퓨리타니아의 가혹한 환경은 불시착한 선조들이 타고 온 모선 “메이플라워” 호의 파괴된 함대 DB를 복구하고 냉동 수면 중인 우리의 동족 8만 1천명의 캡슐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원³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첫 1세대가 지나지 않아 우리는 퓨리타니아의 강한 중력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구조와 체질로 변화시켰고 저산소 훈련을 통하여 몇 분 정도는 퓨리타니아의 타는 듯한 대기에서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지구에서 4광년이나 떨어진 태양계에서 지구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에 도착한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섹터 2020을 벗어나면 퓨리타니아의 환경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노력에 비해 적은 결과만 보여준다.

불시착 후 30년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진정한 리더라며 생존 방법에 대한 의견과 주장이 달라 집단 내에서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오퍼레이터라 부르는 일부 온건적 드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대까지 존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극악의 환경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기원이었다.

모선의 함대 DB 기록에 근거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1세대 선조들이 후세들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가이아의 출현이 올 때까지 후세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 개체, 즉 복제 개체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종말적인 공황 상태를 겪어야만 했다.

애초에 1세대 그룹들이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였겠지만 1세대 선조들은 지구에서의 인간처럼 행성 퓨리타니아에서 인간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다.

2세대 개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날 때 우리 종족이 번성할 것이라는 공동의 기쁨과 희망을 가졌지만 1세대 중 자원자의 육체와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복제를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슴 속 깊게 들어온 죄의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과 번성이라는 집단 전체의 욕구와 본능 속에 원죄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욕구를 분출하면 할수록 우리의 정신은 황폐화 되었고 우리의 생물학적 결함에 대한 성스러운 노력과 도전은 옳은 일이라는 인증을 받고자 했으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를 갈구하게 되었다.

³ 주 동력원인 핵융합 엔진의 연료는 중수소였다. 그러나 물을 생산하는 기관실이 파손된 상태에서 비상용 85% 농축 고체 연료 HEU235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예비용이었기에 그 양은 많지 않았고 불시착 이후 초기 5년간은 퓨리타니아 전역으로 탐사 드론을 내보내 지형 구조, 성분 데이터를 수집하기만 하였다. 이후 정예 탐험대가 퓨리타니아의 양 극점 지표면 아래 수 킬로미터 아래에 대량의 물이 얼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모선의 플라스마 동력원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⁴ 월면기지의 섹터1004(NX위원회 산하 인류 복지 관리5국)에서 인큐베이터 시설을 거쳐 태어난-생산된-개체) 1세대들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질병과 돌연변이 유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그 중에 우수한 복제 개체(면역성 98% 이상)로만 탐험대에 선발되었다. 이것은 우주에서 닦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극복하고 오랜 시간을 선체 냉동 수면 상태로 지내야 하는 등의 실험 대상으로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NX위원회의 의도였다. 그러나 퓨리타니아에 불시착한 탐험대 모선(메이플라워 호)에 실렸던 총 8만 여 개체 중 절반은 수면 캡슐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부족한 산소와 물을 찾기 위한 고난의 시간(지구시간으로 5년)동안 서서히 죽어갔고 무사하게 냉동 수면에서 깨어난 개체는 불과 5천 명이었다. 가장 큰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에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었다는 것, 기축 수명도 30년 정도였다는 것이다. 애초에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분열 횟수를 조작하여 제한했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50여 년간 우리 자신을 복제했으며 이런 상황은 퓨리타니아의 다음 궤도에 위치한 클라투(AC 태양계 제 4행성)에서 날아온 운석에서 발견된 생명의 원천이라 불리는 포자 물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생식 능력을 가지게 되는 때까지 계속 되었다.

NX: AC Saga

결국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카라⁵”라는 종교 집단이 우리의 리더 그룹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조직 체계도 1 세대⁶가 대부분 죽고 나서 2 세대들이 우리의 주류를 이룰 시점에는 리더 그룹의 사상⁷이 지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습적이며 문화 활동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집단 최우선의 행동 철학 근간에서는 제외되었다. 2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 부분은 고향 별 지구를 같이 떠나왔던 오퍼레이터(Drone) 집단이 수행했던 임무⁸의 내용과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에피소드 1: Story Cut-scene Image 제작을 위한 참고.



아군 드론: 교육, 생산 관련 오퍼레이터(참고이미지: 스타크래프트 2)

⁵ 긴 우주여행 동안 모션 항해를 이끌었던 오퍼레이터 팀에는 엔지니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랜 우주 항해는 사람들의 삶을 고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구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은 모션 내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유일하게 지구의 환경처럼 별을 볼 수 있는 구역은 모션의 중앙 라운지로 높이 800m, 홀 넓이 400m²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 외의 구역은 공기의 축적도가 너무 낮아서 맨눈으로는 우주의 별들을 볼 수 없었다. 음악, 미술 등의 예술가들과 영화 감독들이 만든 지구의 작품들은 많은 인력들에게 가끔 즐거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도하게끔 해준 것은 종교 그룹들이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3개의 거대 종교 집단에서 탐험대에 합류시킨 종교 그룹 인력은 항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런 기반이 훗날 섹터 2020에 도착 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재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중 가장 큰 세력이 카라(KARA)였다.

⁶ 사실에 근거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지구의 월면 기지에서 생산된 인류의 첫 복제 개체 집단으로 총 30만 개체가 복제되었고 20여만 명은 달의 궤도 조선소 건설과 모션 건설에 투입되었고 대부분 사망하였다. 첫 생산 세대의 말엽에 모션에 냉동수면 상태로 실려졌고 모션을 탈취한 몇몇 그룹과 함께 퓨리타니아에 불시착했다.

⁷ “신의 낙원에서 원죄를 짓고 쫓겨났다”는 근본 교리는 태초의 시작을 신이 아닌 자연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만 다를 뿐 직선적인 세계관과 종말론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은 지구의 종교와 다를 바 없다. 오퍼레이터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던 수면 상태에서의 교육 중에 종교에 귀의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⁸ 지구를 떠나 무사히 탐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후의 명령서로 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연락과 그 방법, 외계 행성의 식민 거주지 건설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신 세대의 등장

몇몇 생이 얼마 남지 않은 1 세대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지구의 위성인 달 궤도 조선소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만들 때의 이야기나 모선에 올라타 지구를 떠날 때의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2 세대나 3 세대 중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오퍼레이터 집단 중 전투적인 일부와의 불화는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당시에 오퍼레이터들과 우리의 대립은 지구 궤도를 떠나 화성 궤도를 지날 즈음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고 한다. 모선은 처음부터 이곳 퓨리타니아로 목적지가 정해진 상태의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 아 광속의 속도로 움직였고 도착할 때까지는 정지할 수가 없었다. 우리 선조들은 오퍼레이터들에게 항해를 의지하고 다른 동족들처럼 냉동 수면 캡슐에 몸을 맡겼고 지구로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상태로 반 지구적 집단 행동을 한 우리 선조들을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오퍼레이터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충실히 항해를 완수한 것 같았다. 그러나 퓨리타니아에 도착 후 수십 년이 흘러 섹터 2020 을 중심으로 정착 도시 건설이 마무리 될 즈음에는 지구에 연락선을 보내는 안건 때문에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크게 벌어졌고 더 이상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었으며 오퍼레이터 중 일부 전투 집단이 벌인 폭력, 살상 사건으로 인해 우리와 오퍼레이터간의 신뢰의 끈은 끊어졌다.

"카라"의 몇몇 수장과 오퍼레이터 간의 논의로 잠시 휴전을 맺었지만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식지 않았으며 퓨리타니아에 불시착 후 30 년이 지나던 때에 오퍼레이터⁹들은 일부만이 남은 채 섹터 2020 을 떠나서 적도의 사막 지역으로 옮겨갔다. 오퍼레이터 중 우리와 같이 있기로 한 1,000 여 개체는 주로 교육과 생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장했었기 때문에 떠나간 3,000 여 전투 오퍼레이터들은 어쩌면 애초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달랐는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 우리의 총 인구 수는 5 만을 회복한 상태여서 인구 수에서 열세였던 그들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열세였던 관계로 그들의 주장을 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퓨리타니아의 적도 지역(위도 38 도 아래 지역)은 끔찍하다.

물의 비등점에 육박하는 뜨거운 열기를 뿜는 모래와 달구어진 바위들이 둥구는 계곡 외에는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퍼레이터들은 그런 지역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내장된 에너지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그들은 죽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기 때문이다.

"드론"

⁹ SAMSUNG의 아만 프로젝트로 처음 탄생한 시제품은 골격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금속과 반도체로 이루어진 신경 회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SAMSUNG의 협력 회사였던 MIRINAE(생체 단백질 반도체를 개발, Drone의 AI 프로그램을 설계한 회사)의 "제이슨 정" 박사의 제안으로 생체 조직 외피와 단백질 반도체 회로를 내장한 Drone을 추가 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품의 AI 프로그램은 입찰 시 일부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의 기본 성향이 아닌 인간을 지배하는 관점, 즉 과거 지구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통치자들의 성향을 기본 성향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였다. 클론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인간을 통치했던 통치자 형 AI의 도입은 옳은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을 SAMSUNG측이나 MIRINAE 측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았다. 최초의 생체 조직 Drone은 2063년 초에 섹터1007로 불리는 월면 플랜트에서 생산되었으며 그 수는 모두 5,000기를 넘지 않으며 이들은 클론의 지구 탈출 시 모두 메이플라워 호에 함께 승선 했었고 이후 스스로 정보를 얻고 분석, 학습하고 진화하며 다양한 성향의 개체로 분화되었다.

NX: AC Saga

우리는 그들을 드론이라 불렀다.

오퍼레이터들은 사실 모두 드론이다. 신체 주요 골격은 금속과 플라스틱, 세라믹 등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전투 개체들을 제외하고는 외피는 생체 조직이다.

사막으로 간 드론들은 타는 듯한 사막의 열로 인해 외피 생체 조직을 모두 도려내고 순수한 그들의 금속 골격에 장갑을 강화했다.

그들이 사막으로 간 이후 우리는 적도 아래 지역과 남극 쪽은 다가갈 수가 없었다.

사실상 우리와 드론간의 전쟁은 퓨리타니아의 패권을 놓고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 1: Story Cut-scene Image 제작을 위한 참고.



초기 드론: 인간형 스타일



메이플라워 호의 드론 수리, 부품 격납고(참고이미지: 터미네이터 4 아트컨셉)

기타 메카닉 디자인에 대한 칼라 참고: <http://gargantia.jp/#mechanic>

1.4. 발전과 반목

섹터 2020의 정착 정부가 행성 퓨리타니아로 새롭게 이름 짓고 역사시대를 선포했던 해¹⁰에 우리는 메이플라워 호 함대 DB에 기록된 지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을 더 이상 합성 생산하지 않고 채취할 수 있었다.

퓨리타니아의 북극까지 연결한 궤도 레일이 완성되어 북극의 얼음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얼어있던 얼음 속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을 소독하고 정류하기 위해서 정제 탱크 유류선을 제작하여 정류를 했고 식수로 사용할 물은 직경 500m, 높이 100의 대형 수조 탱크를 20개나 설치하여 보관하고 각 탱크와 탱크는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 순환할 수 있게 하였다. 정제된 순수한 물은 파이프라인을 따라 섹터 2020의 남쪽 저지대의 소금 사막에 채워 넣어졌다. 함대 DB의 기록대로 지구의 바다처럼 염분이 함유된 물에서 퓨리타니아의 새로운 생명의 기원을 낳고 싶었던 것이다.

수 년간 400km²의 넓이의 남쪽 소금 사막 저지대에는 얼음 녹인 물이 채워졌고 호수의 지반, 아니 우리의 바다 해저는 더 침하되어 평균 수심 400m의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보다 더 만족스러운, 퓨리타니아의 과거 어느 한때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바다¹¹가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바다가 생긴 후 섹터 2020 정착도시의 인구는 순식간에 10만을 회복했다. 냉동 표본 저장실에서 꺼낸 지구의 어류와 해조류를 바다에 풀어 넣고 안전성이 확인된 퓨리타니아의 고유 미생물들도 바다에 넣었다. 생명의 신비함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었다. 오랜 시간 정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에서 스며 올라온 미생물과 바이러스는 시간이 갈수록 그 종류가 많아졌고 우리도 그것들에게 적응이 되어 갔다.

퓨리타니아의 미생물 등의 생물 종들이 비교적 우리에게 특별한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극의 얼음을 보강하면서 넓어지는 바다에 의해 바다 주변의 기후와 대기 성분도 바꾸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산소 발생기에서 생산된 산소는 섹터 2020과 그 주변의 산소 구성비를 올려주기 시작했고 섹터 2020의 거대한 차폐 돔이 벗겨지는 날 우리는 드디어 퓨리타니아의 대기를 직접 숨쉬는 감격을 누리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이룩했다는 성취감에 울먹였다. 정착 정부는 이 날을 기원의 날로 정하고 건국 행사를 하였으며 “카라”의 수장들은 이 날을 기념하며 시와 노래를 만들었고 지금도 건국 기념일에 그 노래를 부른다.

우리는 퓨리타니아의 행성 전체로 주거 거점 공간을 넓혀갔다. 리더 그룹들의 영향력은 이 시기에는 약화되었지만 ‘널리 퍼져 번성하라’는 “카라”의 교리는 우리의 본능과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km 이상 높이의 산지에서는 여전히 산소는 부족했으며 위도 38도 이남으로는 드론들의 영역이면서 극악한 환경인 관계로 우리는 섹터 2020의 주변 대기 환경의 개선 속도를 늘리려 ‘메이플라워’ 호의 냉동 표본 저장실에 잠자고 있던 지구에서 우리와 같이 실려왔던 동, 식물 종들을 꺼내 대규모로 조림하고 복제했다.

수 년 동안 성장 촉진 과정을 통하여 함대 DB의 기록 영상물로만 봤던 숲을 만들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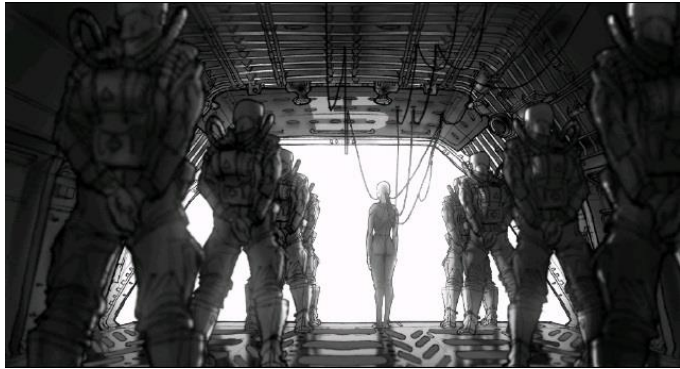
가히 다시 없을 이런 퓨리타니아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부하고 행복에 빠졌다.

¹⁰ 모션의 타이머는 지구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지구시간 2200년이 퓨리타니아에서는 기원 1년으로 선포된 해이다. 메이플라워 호가 지구의 달 궤도 조선소에서 2099년 출항하였고 AC 태양계의 제 3행성(퓨리타니아)에 불시착한 때가 2155년이므로 지구를 떠난 지 100년, 불시착 이후 45년 만에 클론들은 퓨리타니아의 새 기원을 정한 것이다.

¹¹ 테티스(Tethys) 해. 우리가 만든 바다로 의미가 컸다.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지켜주길 기원하면서 함대 DB의 기록에서 고대 지구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NX: AC Sa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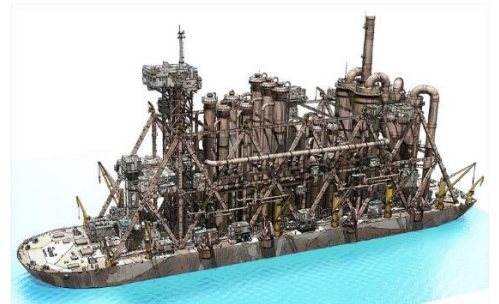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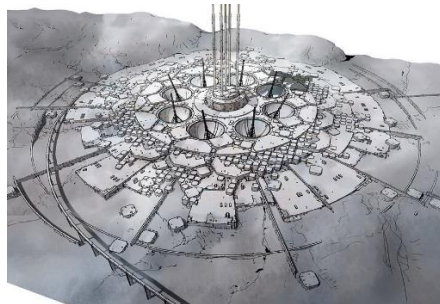
에피소드 1: Story Cut-scene Image 제작을 위한 참고.



섹터 2020 의 차폐돔을 열었을 때 “카라”의 수장과 오퍼레이터 들.(참고이미지: Homeworld)
퓨리타니아의 일반적인 가스 구름.



섹터 2020 의 앞 바다인 테티스 해의 해저 풍경.(참고이미지: 어비스)



테티스 해의 풍광

정제 탱크 함선.(참고 이미지: 가르간티아 <http://gargantia.jp/#world>)

1.5. 전쟁의 서막

우리의 이런 행복한 생활도 퓨리타니아 행성의 모든 존재에게 그러하지는 않았다.

이미 지구에 보내는 연락선 문제로 일부 오퍼레이터를 제외한 섹터 2020 을 이탈한 드론들은 사막의 지하에서 여러 광물을 발견하고 채굴하고 있었다. 불시착 초기에 탐사 위성이 보내 준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계획적으로 사막으로 내려간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했다.

정착 정부의 결정으로 결성된 군대, 경찰대가 사막의 드론들을 정찰한 보고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생체 조직은 더 이상 없는 그들의 몸은 채굴한 광물로 장갑을 더 두텁게 했으며 전투 기어들을 대거 보강을 했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사막 지하와 바위 계곡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생산 플랜트였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의 개체 수를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교전 규칙을 무시한 채 경찰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해 왔다. 드론들은 우리를 이제 지구를 떠나 온 동료가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퓨리타니아 기원 25 년이 되던 해에 우리의 경찰대는 드론들이 지구로 보내는 무인연락선¹²을 발진시키는 것을 보고했다. 드론 측에서 보내던 우리가 보내던 여유 있는 쪽이 보내주면 고맙다고 생각했던 3 세대들에게 오퍼레이터 그룹과 "카라"의 수장들이 비관적인 예측을 토로했다.

우리는 지구에서 반역으로 낙인 찍혔을지 모른다는 것을.

퓨리타니아 기원 29 년, 드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드론 측의 지도자 그룹¹³이 교체 된 것으로 우리 경찰대의 보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쟁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었다. 드론의 공격은 치밀했으며 그들이 먼저 공격을 가한 곳은 우리 정착 정부의 섹터 2020 이 아니라 우리의 바다와 숲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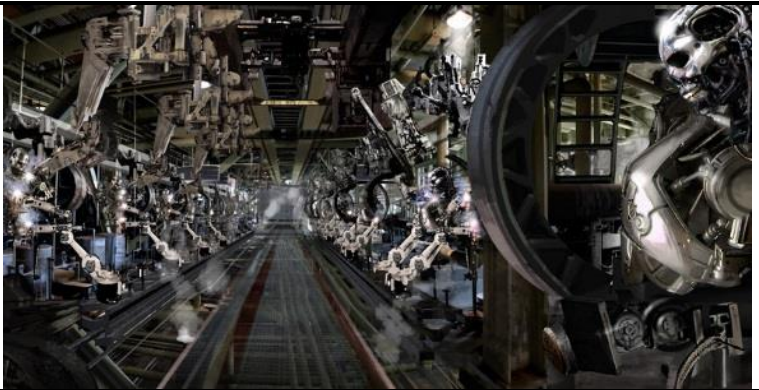
순식간에 섹터 2020 을 둘러싸고 있던 숲의 절반이 화염에 잿더미가 되었고 바다의 염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숲과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드론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의 사기를 꺾기 위하여 우리가 이룩한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¹² 지구에서 AC 태양계로의 이동은 지구시간으로 50년이 넘게 걸렸다. 지구의 태양계에서 빠져 나온 이후 성운의 바다를 건너는데 40여년이 걸렸으며 AC태양계의 태양풍이 미치는 범위에 접근한 이후 수 많은 혜성과 소행성, 기타 입자들의 공전 궤도 운동을 계산하는데 5년의 시간을 소비하고 퓨리타니아의 궤도에 안착하는데 5년의 시간을 소비했다. 냉동 수면 중인 동포들의 고귀한 생명과 탐험의 임무를 완수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오퍼레이터 집단 중 일부는 퓨리타니아에 정착하는데 클론을 도와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고 다른 일부는 드론으로서 지구 정부에게 받은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탐험과 정착 성공의 메시지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인 우주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마지막 에너지를 다 바쳤다. 이들이 쏘아 보낸 무인연락선 "신세계3호"는 이후 15년 후 지구 궤도에 도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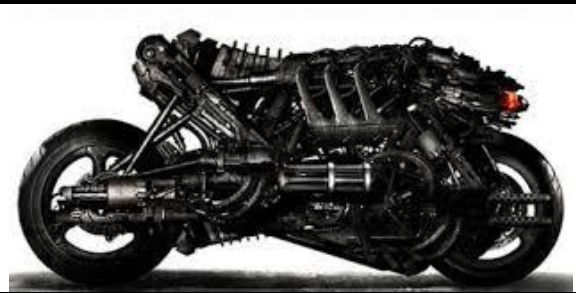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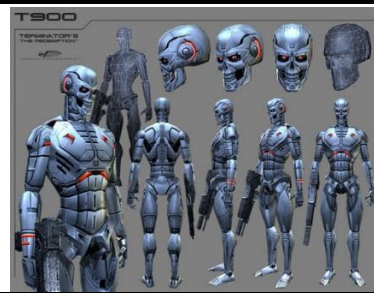
¹³ 가장 적대적인 무리는 퓨리타니아 기원 1년에 섹터 2020을 떠났으며 이들을 이끄는 수장은 스스로를 '로이어'로 불렀다.

NX: AC Saga

에피소드 1: Story Cut-scene Image 제작을 위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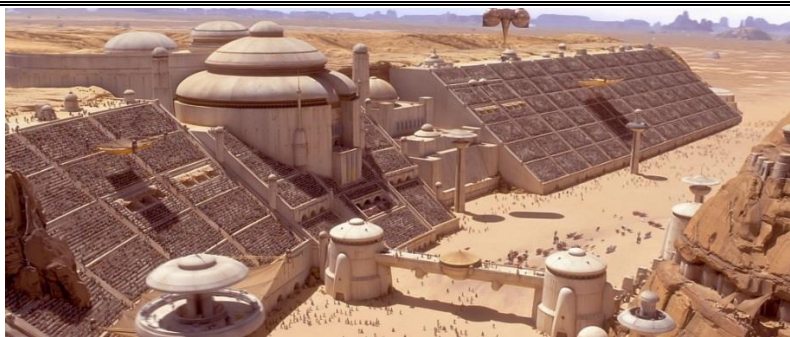
사막 지역의 드론 플랜트



변형 드론: 분화, 기계형



퓨리타니아 내전 상상도(참고이미지: 스타워즈)



좌) 섹터 2020 / 우) 드론 본부(참고이미지: 스타워즈)

1.6. 기술과 무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드론들이 섹터 2020 을 떠나 사막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서야 함대 DB 를 분석하면서 지구에서의 인간들이 사용했던 무기 체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기라기 보다는 채굴과 조선소에서 공사에 필요한 기술들이었고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기를 개발해야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은 살상용 무기가 아닌 이동을 위한 장비였다.

파이프라인과 수조의 건설, 파괴되었던 “메이플라워”호의 가동이 중지된 여러 부분들을 복구하느라 연구와 개발을 집중한 탓에 우리의 이동 수단의 관련 기술과 개발능력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불시착 초기 5 년간은 퓨리타니아의 전역을 스캔하기 위한 탐사위성을 매뉴얼대로 조종했을 뿐 퓨리타니아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지는 않았다. 이후 퓨리타니아 기원 선포까지도 우리는 비행 기체에 대해서는 개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타고 움직였던 기체는 소형 정찰기 30 대가 전부였다. 이런 전술적인 결점은 드론의 이동 능력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고 정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없었으며 오퍼레이터들 중 일부만이 그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지도하에 정찰기 5 대를 분해하고 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엔진 구조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계산했을 때 정찰기 같은 큰 기체를 생산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우리는 정찰기의 핵융합 방사 구동장치를 보다 소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정찰기 1 대를 만드는 분량으로 100 기의 소형 구동장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고 약 1 만 기에 달하는 소형 구동장치인 플라스마 부스터를 생산했다. 초기 시제품 플라스마 부스터는 “메이플라워”호의 그것이나 정찰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너무 크기가 작아서 핵융합 방사 구동장치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플라스마 캡슐을 실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고속 추력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그 항속거리도 정찰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짧아졌다.

오퍼레이터들과 우리의 연구진은 몇 달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마 부스터를 개발해 내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단점이 있었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부스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원의 신체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에서 몸의 배후에 붙이는 분리형으로 만든 것이다.

효과는 좋았다. 생산량도 3 만기 이상 생산이 가능했고 충분한 속도와 항속거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전투원들의 몸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세라믹 장갑이나 강화 합금 장갑의 사용을 신체 취약 부위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위험에 노출할 수 밖에 없는 강화 슈트를 입어야 했다. 이 강화 슈트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슈트와 피부가 맞는 얇은 층에 에너지 흡수 층을 넣고 바깥쪽에는 세라믹 소재와 융합시킨 폴리머 합성물의 결정으로 보강되면서 성능이 강화되었다.

강화 슈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투를 해야 했기에 우리는 함대 DB 에 기록되어 있던 지구에서의 전투 기술과 고대 무술을 망라하여 근접 전투와 원거리 사격 등의 훈련을 지독하게 받아야 했다. 게다가 이런 장비 외에 우리의 육체를 한번 더 개조해야 했다.

퓨리타니아의 강한 중력과 밀도 높은 대기에서의 플라스마 부스터 이동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대기 마찰로 인한 고열과 중력가속도에 의한 어지러움 등의 현상¹⁴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것들은 모두 극복해야만 하는

¹⁴ 레드아웃과 블랙아웃의 2가지 현상은 함대 DB의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다. 퓨리타니아의 중력은 지구의 그것보다 강한 관계로 이 증상이 더 심화된다. 블랙아웃은 부스터 이동 시 몸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치 중력이 높아진 것처럼 되어서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며 뇌와 안구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인데 레드아웃보다는 위험성이 적다. 레드아웃의 경우는 블랙아웃의 반대 현상인데 머리 위쪽 방향으로 원심력이 가해진다. 이때 머리와 안구로 혈액이 쏠려 온통 빨강게 보이는 현상이다. 많은 전투원들이 비행 훈련중 안구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리고 뇌의 내출혈도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생겼다. 블랙아웃 시 걸리는 중력가속도는 3G가 한계이고 레드아웃일 경우 -1G만 되어도 치명적이었다. 지구의 기준으로 약 2.5배의 중력의 세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서의 고속 비행처럼 할 수는 없었다.

NX: AC Saga

문제였다. 오퍼레이터들이 주로 사용했던 스카우트 글라스¹⁵는 밀도 높은 대기에서 작은 점성 미립자 때문에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시야를 방해하기 일쑤였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전투원들은 각막 수술을 통해 스카우트 렌즈¹⁶를 이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야간에도 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퓨리타니아의 태양 빛은 우리에게 자외선 영역에 가까운 빛을 보게 하기 때문에 렌즈를 각막에 이식한 전투원들의 눈은 대부분 푸른색에서 보라색 빛을 띠게 되며 안구의 흰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되어 어린 아이들은 우리를 무서워한다.

전투 훈련을 통해 각 전투원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그에 맞는 무기를 디자인했던 우리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투사체 기반의 무기를 제안했었다. 이 무기도 “메이플라워”호와 정찰기에 실려 있던 여러 운동 무기들 중 하나인데 중원소의 탄창을 초전도 물질로 만든 용기에 담아 매스 드라이버라 불리는 비교적 간단한 자기가속 장치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자기 가속 포였다. 문제는 이 기술은 애초에 함포로 개발된 것들이고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서 퓨리타니아 대기권에서는 사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게다가 다른 단점은 이동 수단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속 장치를 개개 전투원이 장비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기를 줄이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연구원들은 지구의 우주 개발 이전 시대의 무기에 관심을 가졌고 화약의 폭발로 에너지를 얻고 발사되는 화기 무기들을 재현해 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기라고 하는 이런 투사체 무기와 미사일 무기들은 고속 기동력을 갖춘 드론들을 잡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

신 무기의 개발은 연구원들이 아닌 전투원들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제안되었는데 근접 전투 무기와 에너지 기반 무기였다. 드론들도 우리를 사냥하기 위하여 근접으로 붙어야 했다. 그들은 애초에 투사체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구원들과 오퍼레이터의 분석으로는 2 가지 이유로 판단한다.

하나는 드론을 처음 설계할 때 내장된 AI 패턴 때문이다. “생명체를 살상할 시에 반드시 근거리에서 확인하라”라는 패턴인데 이걸 드론을 SM 에서 개발할 때 “제이슨 정”을 필두로 하는 프로그램 집단이 근접 전투 신봉자들이었다는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퓨리타니아의 사막에서 어느 순간 교체된 드론 지도자 그룹의 성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 기반 무기를 사용하는 다른 드론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전투원들의 경험으로 볼 때 드론이 공격하러 접근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대기에서 피할 정도로 느린 투사체 무기는 효율이 떨어진 관계로 우리는 근접 무기와 에너지 기반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의 장갑 슈트는 기동력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하지만 드론의 합금 장갑을 뚫기 위해서는 근접 무기만큼은 경도가 강한 것을 써야 했고 그래서 세라믹 토마호크¹⁷, 빔 소드 등을 개발했다.

원거리 무기는 모두 에너지 기반 무기였는데 이것은 고 에너지 입자를 집중하여 발사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온 빔 병기로 알려진 이것들은 입자가속기로부터 양이온의 흐름을 발사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무기들은 좁은 지역에 엄청난 고 에너지를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 무기도 모선에 장착했던 함포 무기로 개발된 것이라 소형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이온 빔은 고 에너지 입자의 수준을 낮추면서 포신은 필요하지 않았고 구 형태의 소형 입자 가속기를 개발하면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이온 분사 무기의 화력은 적 기체나 함선을 파괴하기에는 화력이 약한 것이 흠이었다. 이 부분은 무기 개발팀에서 계속 연구되고 있다.

¹⁵ 일종의 전투 고글(Goggles)로 GPS 방식의 송, 수신 칩을 내장하고 있어 적의 무기 제원, 크기, 약점 파악 등의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구형 모델로 초기 섹터 2020의 클론 전투원들에게 지급된 품목이었으나 후에 각막 착용 렌즈로 대체되었다.

¹⁶ 레드아웃 현상을 보완하고 전투 시 HUD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각막 이식용 렌즈.

¹⁷ 훈련 과정을 통해 가장 근력과 완력이 강한 전투원들에게 적 드론의 외부 장갑을 한번에 쪼갤 수 있는 무기로 고안되었는데 이 무기의 기원은 지구의 북유럽 등에서 사용되었던 고대 바이킹의 전투 도끼를 모델로 한 것이다.

1.7. 생명의 포자

상당한 연구와 노력으로 방어 장비와 공격 무기를 개발한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경계를 했지만 드론들의 기습을 막지 못하고 공세에 밀렸다. 장비의 수준이나 전술 상의 문제가 아닌 숫자 상의 문제였다.

적 드론들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사막 지역에서 수 년 동안 엄청난 수의 개체로 세를 확장하여 우리의 총인구의 10 배가 넘는 병력을 확보했다. 우리가 파괴한 드론들의 플랜트는 많았지만 파괴한 만큼 다시 지어졌다. 드론들은 적도 사막의 바위 계곡을 근거지로 삼고 자신들의 몸을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한편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광물 탐사와 채굴을 병행하였다. 또한 “메이플라워” 호의 함대 DB 를 처음부터 복사했었기에 그들의 DB 는 우리와 수준이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구에 보낸 연락선은 드론들이 보낸 것이고 지구에서 만약 1 세기 안에 병력을 보낸다면 그 병력이 지원군이 될지 진압군이 될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드론과 우리의 병력 차이가 20 배¹⁸ 차이로 압도되고 있다는 정찰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적 드론들은 섹터 2020 의 중앙 지구로 총 공세를 감행했다. 외부 쉴드가 모두 깨지고 섹터 2020 의 심장부에서 총력 방어를 펼치면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카라”의 수장들이 말하고 표현하던 종말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¹⁹에 휩싸인 상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 같은 한 줄기 빛의 추락을 보게 된다.

퓨리타니아 기원 30 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적대 드론 세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위 38°도 부근의 습지에 떨어진 운석으로 생성된 거대한 먼지 구름은 지표면 위 상공 50km 까지 치솟았고 지각의 파편들은 사방 200km 까지 날아갔다. 공교롭게도 운석이 떨어진 지점이 드론 본진에서 출발한 주요 병력의 집결지였다. 선봉 병력이 섹터 2020 을 총 공격 하였지만 후방에서의 지원 병력 50 만 기가 폭사한 상황에서 드론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비록 우리의 수는 적었지만 섹터 2020 의 에너지 차폐 쉴드를 방패 삼아 섹터 중앙에 침입한 드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나갔다. 적 드론들도 후방에 떨어진 운석의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EMP 파로 인하여 통신의 마비 상태에서 상황 파악을 한 몇몇 지도자 드론들의 명령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승기를 잡고 밀어 붙이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전투원들이 반격의 진격을 개시했지만 곧 “카라”의 수장들과 오퍼레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격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신 운석이 떨어진 곳의 특수 정찰대를 파견하기 위해 최고의 정예 전투원을 소집했다.

¹⁸ 섹터 2020의 클론의 개체 수가 당시 20만을 약간 상회했지만 전투 훈련을 받은 성인 개체 병력은 불과 5만이 채 되지 않았다. 이때의 드론의 출전 병력은 50만 기였는데 사막의 드론 본진에 출동 대기 상태의 병력은 출전한 병력보다 많았다.

¹⁹ 적의 총 공세는 6 개월 간 지속되었고 섹터 2020 의 방어 쉴드에 메이플라워 호의 모든 에너지 동력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 시리얼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훗날 저주받은 세대로 불리는 4 세대들은 드론들에게 더 더욱 깊은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개체가 많아지자 우리는 후기 세대의 복제와 인큐베이터 가동을 멈추고 총 병력과 모든 동력을 전쟁에 집중시켰다.

NX: AC Saga

운석이 떨어진 후 72 시간 정도 경과하자 먼지 구름이 걷히면서 경찰대가 파견되었고 그들이 보내 온 영상으로 직경 6km, 깊이 1km의 거대한 구덩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드론들은 이미 그들의 후방 병력의 기체가 운석이 떨어질 때의 폭발로 회생 불능의 기체 잔해들이 타다 남은 뼈다귀처럼 구덩이 주변 몇 km에 걸쳐 있는 것을 보기 싫었는지 사막의 본진으로 철수를 한 상태였다.

우리는 드론의 파괴된 기체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포자”

그것은 포자였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포자가 아니었다. 우주 공간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포자 생물은 지구에서의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숙주로 이용하는 능력이었다. 게다가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의 생식 능력이었다. 일반적인 특징은 식물로 여길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포자의 씨와 수정 부분은 동물의 그것과 같았던 것인데 하나의 개체에 한 쪽만 있는 것도 있었고 양 쪽 모두 있는 것도 있었다.

지구의 일부 식물 종에도 암꽃, 수꽃이 한 나무에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일부 동물에도 자웅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있었지만 동, 식물적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유기물과 무기물의 구조에 동화되어 개체를 생산하는 이것들의 존재는 가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마적인 것이었다.

“카라”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를 이것의 이름을 “마몬²⁰”으로 부르기로 했다.

“마몬”이 어떻게 운석에 실려 날아왔는지, 대기와의 마찰에도 살 수 있었는지도 수 많은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우리 태양계 내에 우리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AC 태양계의 제 4 행성(클라투)을 포함한 행성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궤도 우주에 대한 진출의 의지를 끓어오르게 했다.

²⁰ “카라”의 교리는 지구에서의 3대 종교의 경전들을 종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지구의 크리스티교의 내용을 많이 담아 내고 있는데 신약 경전의 아람어(Aramaic language) 단어 중 ‘마모나(Mamonas): 재물’에서 유래한 말이 마몬(Mammon)이다. 마몬은 부와 우상화를 뜻하는데 순수 종교적 의미는 ‘인간이 보다 의지하는 지상의 부’, 즉 무엇인가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경계적 의미로 사용한다. “카라”의 수장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퓨리타니아의 큰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종교적 본능으로 이렇게 명명한 의도가 강하다.

1.8. 축복과 저주

“마몬”은 테티스 해의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남게 하였다. 동물, 식물을 가리지 않고 숙주로 삼아 원천적인 생물의 특징을 변화시키는 “마몬”의 무서운 힘은 우리의 섹터 2020 에 대한 물리적 방어뿐만 아니라 방호적인 개념도 경각시켰다. 테티스 해의 남쪽 해안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운석의 폭발로 테티스 해의 남쪽은 거대한 정글 숲이 생겼다. 드론들이 태워 버린 숲의 몇 배 면적이 불과 100 시간도 안 되어 생겨 버린 것이다. 문제는 그 속도가 빠른 것이었고 테티스 해의 물이 막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발견이라면 발견이다.

남쪽의 정글에서 “마몬”에 의해 변형된 변종 생물들은 “마몬”의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속도로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3 단계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해당 개체와 환경이 1 대 1 매칭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숲에서 변형된 생물 종이 사막으로 번식지를 옮기는 일은 없고 사막에서 생겨난 생물 종이 테티스 해 쪽으로 오는 일은 없었다. 우리는 드론과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마몬”에 의해 변형된 생물 종의 번성과 침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조치를 취했다.

“마몬”의 능력이 이런 저주만을 내린 것은 아니다. “마몬”의 출현은 우리 퓨리타니아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사건이 되었다. 우리의 DNA 에서 사라진 유전자와 유사한 인자를 “마몬”의 DNA 에서 발견한 것인데 “마몬”의 DNA 를 분석했던 오퍼레이터와 기술팀은 “마몬”의 DNA 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우리 DNA 의 잘려진 고리에 접합하는 방법까지 제안하였다. 이 안건을 제안한 것은 오퍼레이터가 아닌 3 세대 출신 중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던 “가이아²¹”라는 여인이었다. “가이아”는 “카라”의 일원으로 후기 세대의 리더로 이미 카라 내의 원로들도 그녀의 지성과 품성에 대해 감동하여 카라의 차기 지도자로 점 찍은 인물이었다.

“가이아”는 이 실험의 제안자이자 자원자로 자신의 몸을 첫 실험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기적²²이 일어났다.

다음 해 그녀는 지구에서 많은 인간이 당연하게 해왔던 아기 출산을 맞게 되었다. 가이아가 낳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는 계집 아이였으며 이후 넷째에서 일곱째까지는 모두 사내 아이였다. 다른 가이아를 따르는 여성들도 둘째까지는 모두 계집 아이였다.

²¹ 포자 생물 “마몬”에서 추출한 DNA를 이식하는 프로젝트에는 지원자로만 그 실험 대상을 정하기로 하였다. 섹터2020의 정착 정부의 의회에서는 복제와 균형이라는 75년간 유지해 온 철학을 견지했는데 “마몬” 프로젝트는 헌법을 바꿔야 할 사안이었기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했다. 이에 “카라”는 교리의 근간이 되는 ‘넬리 번성하라’는 제 1 교리에 맞춰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오퍼레이터들의 성공 확률이 희망적으로 발표되자 의회는 즉각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문제는 지원자 였는데 아무도, 특히 여성들 중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때 처음 지원자로 “카라”의 후기 세대의 리더였던 “가이아”가 지원을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더 이상 복제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성 염색체를 포함한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품은 첫 번째 여성으로서 또한 다산의 상징이며 퓨리타니아의 신화, 종교, 철학 등의 모든 부분에서 추앙 받는 전설적인 대모로서 “가이아”는 이름 새겨졌다. 가이아는 그녀를 따르는 많은 리더 그룹의 여성들을 지원하게 만들었고 그 자신도 15년간 7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²² 가이아의 유전자에 이식된 “마몬”의 DNA는 생식세포의 형성에 필요한 DNA그룹을 생성시켰고, 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시켰다. 배아 착상에 필요한 자궁의 내막 표피 세포의 발달과 함께 인공 수정된 수정란은 안정적으로 착상되었다. 남성 개체의 경우 생산된 정자가 XY쌍의 염색체가 형성되는 것은 비교적 빨랐으나 많은 남성 개체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았고 “카라”의 수장 회의에서 엄밀한 과정을 거쳐 선발한 144명의 남성들에게만 수술을 하였다. 이 남성들은 섹터2020을 이끄는 주류인 3세대의 주요 인물들로 이들을 이끄는 수장은 “우라노스”라는 자로 드론과의 전쟁에서 총 사령관으로 지휘를 했던 인물이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행성 퓨리타니아의 섹터 2020의 평균 기온이 섭씨 26도 전후였는데 기온 조절 장치의 고장으로 기온이 28도가 된 시점이 몇 개월간 지속된 시기²³가 있었고 그 시기에 인공 수정한 배아를 착상시킨 그룹들은 모두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와 비슷한 기록을 모션의 지구 기록 DB에서는 과거 지구의 양서류나 파충류 일부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음에 우리의 생식 능력의 원천 유전자를 이식 받은 포자도 그것들의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기도 했다.

가이아 그룹에 의하여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한 세대가 사라지기 전 완벽한 성인이 되어 인공 수정이 아닌 동침을 통한 자연 수정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초기 온도에 의한 남 여 성별 구분에 대한 부분을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실험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남성(모두 3명의 남성)의 정자를 인공 수정해야 했던 관계로 가이아의 3명의 딸은 모두 아버지가 다르며 4명의 아들 중 막내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아버지가 같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퓨리타니아의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새로 정립되면서 대모 "가이아"의 자식들은 훗날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모두 주는 존재²⁴가 되어 버린다. 그녀의 가족들은 행성 퓨리타니아의 유력한 정치, 군사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수 많은 퓨리타니아 인들을 고통 받는 상황에 놓이게도 했다. 이런 가족과 가문의 형성은 퓨리타니아 사회의 세습 권력 체계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오래 전 지구에서 그랬듯 퓨리타니아의 초기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는 희박해져 갔다.

사회의 계급은 초기 복제 세대와 가이아의 아이들 출생 이후의 자연 세대의 갈등 속에 나누어지고 있었다. 전쟁 시기에 불안정한 영양 공급을 받고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복제 개체 4세대는 기반 시설을 복구 수리하는 노동력을 요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약점을 떨쳐버린 관계로 더 많은 교육과 성장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게다가 지구의 환경이었다면 지구 시간으로 100년 정도의 수명을 보장 받았겠지만 퓨리타니아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예상 수명이 기존 세대의 그것을 초월했고 지구 기준을 빌리더라도 그 몇 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자연세대의 아이들이 타고난 특징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몰고 왔는데 가장 먼저 변화를 주도한 것은 아니러니하게도 오퍼레이터들이었다.

기원 전 140년 전, 지구 시간으로 2061년에 처음 만들어진 "아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를 계승 받은 지금의 오퍼레이터 리더 "마고"는 퓨리타니아 기원 45년이 되던 해에 임무 "코덱스"를 발동 시킨다.

모든 일은 이제부터이다.

²³ 퓨리타니아 기원 29년 드론의 침공에 의한 1차 내전은 섹터2020의 많은 시설을 파괴하였고 숲과 바다의 피해로 인하여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자 몇 달 간 차폐 돔을 다시 가동시켰다.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관계로 섹터2020의 주민들은 많은 시간을 더위에 시달렸다.

²⁴ 가이아의 자식들은 각각 테이아(Theia), 레아(Rhea), 테미스(Themis)의 3자매와 오케아노스(Oceanos), 하이페리온(Hyperion), 크리오스(Crius), 크로노스(Cronus)의 4형제이다. 이들 남매는 퓨리타니아에서 드론들을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며 주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남매는 다른 가문의 자식들과 서로 연합과 배신을 하여 퓨리타니아의 내전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들 중 막내 크로노스가 승리하여 오케아노스와 하이페리온을 죽이고 3명의 누이들은 모두 옛 드론의 영역인 사막 지역으로 쫓아내 버린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크리오스였으나 퓨리타니아의 정치 세력으로는 남지 않았다. 4세대와 초기 자연세대의 내전은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Jeus)에 의하여 종결을 맞게 되는데 제우스는 행성 클라투로 탈출한 드론의 잔당 세력을 토벌하는 문제를 의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키고 반대했던 클론 4세대들과 자신을 따르는 일부 자연 2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살했다. 이 충격으로 자연세대의 대모 "가이아"는 사망했고 그녀의 사망과 함께 "카라"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우스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로써 퓨리타니아의 초창기 개척 역사는 제우스에 의하여 역사의 뒤로 사라진다. 제우스는 AC 태양계의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드론과 변형 마몬들과의 전쟁을 지휘했으며 지구에서 날아온 NX 산하 UED 군단에 의하여 축출될 때까지 퓨리타니아의 주민들에게 공포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2. 연대 기록

2.1. 모선 DB의 NX 프로젝트에 대한 지구 정부의 기록

2037년 UNOOSA[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의 극비 문서 공개.
2038년 UNOOSA의 문서 공개로 전지구적 관심사화된 달의 뒷면 구조물 NASA에서 언론 공개.
2039년 구 소련의 항공우주국 기밀 보고서와 동영상 공개.
2040년 초, 미국, EU, 러시아, 중국의 4상 협상 발의.
2041년 초, 4상을 제외한 G20, 한국(통일한국)의 주도로 정보 공유 압박.
2042년 초, 바티칸의 "Space Bible" 기밀 해제.
2042년 UN 우주업무사무국 UNOOSA 조직 개편.
2042년 UNESCO 산하 우주 고고학 위원회 발족.
2043년 초, 태양계 행성과 태양계 외부에 대한 우주고고학부의 역할과 업무, 권한에 대한 통합 독립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UNOOSA의 결의안 총회에 상정.
2043년 UN 결의안 2043호²⁵ 채택.
2044년 NX 위원회²⁶ 발족
2045년 NX 위원회 산하 부서 조직 중 5국²⁷ 신설. (우주여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과 교육에 대한 업무를 전담).
2046년 UN 총회에서 NX 5국의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다국적 기업²⁸의 참여 승인.

²⁵ NX[New Extreme Generation] 위원회(UNOOSA의 주요 업무 중 태양계 행성 개척과 자원의 수급 및 항성 간 이동 우주선 건조계획에 대한 기술 연구와 예산 책정, 심의 등 모든 권한과 UNESCO의 우주 고고학 위원회를 통합한 단일 위원회)의 발족에 대한 법률로 UN 가입 250개 나라의 찬성 승인을 얻은 결의안.

²⁶ 달 뒷면의 구조물 발견에 대한 문제는 21세기 중반, 전 지구의 종교, 철학, 정치, 군사, 경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이 문제로 인하여 20세기 냉전 시대의 무인 달 탐험 시대의 기록이 모두 공개되었고 북미 정부의 1969년을 시작으로 1970년대 시행했던 아폴로 계획이 모두 자작, 조작극이었다는 사실도 덩달아 공개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달에 구조물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었고 더 큰 문제는 왜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부분은 수천 년간 대립해왔던 세계의 종교계가 합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고대의 지성적인 존재에 대하여 문화 양식이나 인지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기록된 경전으로 인해 다른 종교들이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다. 지구의 통합 단일 종교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즈음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도 러시아를 필두로 구 소련 연방의 재 결성이 되는 등의 위험한 문제도 겪었지만 평화롭게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한 지구 인류의 국가간 초당적인 협력은 진행이 되며, 이에 기존의 국가 체계가 아닌 지구적 차원의 특별한 조직(신 인류 시대의 개막과 신세계 질서를 위한)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UN 산하의 조직이라는 명분으로 진실은 감춘 채 NX위원회는 탄생하게 되었다.

²⁷ 정식 명칭은 "인류 복지 행정 관리부"이나, 사실상 인류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지구 궤도의 환경에서 우주선 건조를 위한 작업 인력과 월면의 구조물 해체 채취, 자원 채취에 동원하기 위한 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UN 인권이사회의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NX 5국의 활동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졌으며 그 본부도 NX위원회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월면기지에 존재했다.

²⁸ 주요 참여 기업은 13개이나 각 대륙 별 경제권역을 대표하는 형식상의 참여일 뿐 대부분의 업무 계획 및 수행은 "SAMSUNG"과 "IMG"였다. IMG[International Medical Group]는 일개 의료 보험회사에서 Siemens 그룹 등을 인수하는 등 세계 굴지의 의료기기, 기계, 전자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성장한 초 다국적 기업(Rothschild 가문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는 루머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 증거는 없음)으로 월면 플랜트 전체와 주요 에너지 시설을 건설한 SAMSUNG과 달리 배아 세포 생산 부문에만 전념하였다.

NX: AC Saga

2047년 초, 바티칸 교지 2047호²⁹ 선언.

2048년 월면 기지 건설을 위한 연구, 시공 인력 달 뒷면 도착 후 시공 개시.

2049년 UNHRC³⁰[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의장 뢰브르 경³¹ 암살.

2050년 인간 배아 세포의 대량 복제 생산 플랜트 준공.

2051년 NX위원회 산하 인류복지5과 플랜트(섹터1004)에서 인류 최초 클론(개체 시리얼 EHO-1230001, 개체 네임 '아담') 생산.

2052년 SAMSUNG 아만 프로젝트 공개.

2054년 NX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 결의안 2052³² 채택. (2052 주 내용: 달의 뒷면에 존재하는 고대 건축 유적과 그 사용 기술에 대한 보안 유지와 클론 생산에 대한 바티칸을 포함한 세계 4대 종교 단체와의 협약 내용을 담은 결의안.)

2055년 지구 궤도 상에 항성간 이동 우주선 조선소 건설 착공, 클론 인력 투입.

2058년 태양풍 광폭에 의한 궤도 조선소 시설 일부 파괴 사건 발생.

2059년 궤도 조선소 총파업 발발.

2060년 NX위원회 수뇌부와 SAMSUNG의 아만 프로젝트 실무자 접촉.

2061년 NX위원회 산하 인류복지5과 플랜트(섹터1007) 추가 건설과 동시에 SAMSUNG의 신형 Drone (개체 시리얼 하나-1240001, 개체 네임 '아만³³') 생산.

²⁹ 인간 배아 세포의 인공 수정과 대량 생산에 대한 종교적 당위성이 담긴 교황의 교지. NX 위원회를 통한 UN의 압박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크리스티교 외에도 세계의 큰 종교 단체도 같은 내용의 선언을 했다.

³⁰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국제 연합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로 국제 연합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국제 연합 인권위원회UNCHR[United Nations commission Human rights]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설립되었는데 설립 50년 만인 2056년에 NX위원회가 사실상 통제하는 UN 총회에서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³¹ NX의 일련의 계획에 대해 수 많은 NGO 단체들과 협력하여 반대 행동들을 지휘하고 "지구 인류에게 고함"이란 유엔 총회 연설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외교가(NX 위원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하나 발견된 증거는 없음)로 오랫동안 인권 이사회를 이끌었으며 그의 죽음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인권 이사회는 해체된다.

³² 결의안 2052는 NX위원회와 UN 집행부 내에만 공개가 되었던 결의안으로 지구의 대부분의 인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 내용이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클론에 대한 인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클론 중 일부는 지구의 일부 정치인, 경제인 등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장기 이식용으로도 생산되었다. NX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탐험 모션 메이플라워 호의 함대 DB에도 저장되게 된다. 훗날 퓨리 타니아의 정착 도시에서는 이 기록의 열람을 금지하였다.

³³ 아만: 고대 한국의 신화(일부 역사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역사라고 하는)속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남성은 '나반')의 이름으로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드론이다. 클론의 경우 노동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남성 개체를 복제했지만 오퍼레이터는 관리를 위하여 생산을 했기에 기본 뼈대는 금속이지만 외골격을 감싼 근육과 피부 등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는 생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뇌의 경우 반도체가 아닌 셀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NX: AC Saga

2062년 궤도 조선소 총파업 진압³⁴.

2063년 궤도 조선소 1일 3교대 작업 시행, 신형 Drone(전투 장비 장착된, 관리 프로그램 내장된) 5,000기 투입.

2065년 궤도 조선소 준공.

2066년 조선소 제1DECK 모션 엔진 드라이브 프레임 도킹.

2067년 섹터1004 생산 플랜트 증설.

2099년 모션 발진.

2100년 태양계 벗어남.

2150년 AC 태양계 진입.

2.2. 퓨리타니아 정착 정부의 연대 기록

2150년 AC 태양계 진입

2155년 행성 퓨리타니아 불시착.

2155년~2160년 탐사 시대이자 고난의 시대, 탐사 드론의 활약과 산소와 물의 공급을 위한 투쟁의 시대.

2155년~2185년 탐사 드론의 시대.

2200년 퓨리타니아 기원 0년: 시작.

2229년 퓨리타니아 기원 29년: 퓨리타니아 내전 발발.

2229년 “마몬” 운석에 실려 퓨리타니아에 떨어짐.

2230년 “가이아” 퓨리탄 최초의 첫 자연임신의 여성 탄생.

2231년 오퍼레이터 리더 “마고”의 임무³⁵ 가동.

2240년 신세계3호 지구 도착.

³⁴ 파업을 진압한 병력은 SAMSUNG의 드론들이었으며 진압 장비를 착용한 이들은 1만 명에 달하는 클론들을 진압하는데 불과 6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UN의 군대를 투입할 경우 지구의 수 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반발과 내부의 보안 때문에 NX위원회는 섹터1007에서 생산된 드론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총파업을 주동했던 클론들은 대부분 1259000~1270000의 시리얼을 가졌으며 인큐베이터에서 성장 시 태양풍의 피해 때문에 온도 조절 프로그램의 이상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개체들로 판명되었는데 이들을 모두 폐기할 경우 궤도 조선소 건조의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없는 관계로 클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구 시민권(준 인류에 해당하는 권리 보장을 명시)을 발급해주기로 하고 공사에 재 투입하였고 파업 6개월 만에 궤도 조선소는 다시 건조되기 시작하였다.

³⁵ 문제적 AI가 발동되면 드론 스스로 임무를 설정하고 자료 조사 후 판단하고 실행한다. 사실 임무를 설정하고 실행까지 하는 부분은 대단하게 보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임무가 발동되게 하는 패턴이다. 어떤 상황에 이것이 발동되는 것인지 이 AI를 설계한 “제이슨 정” 박사 외에는 알 수가 없다.